

# 한국 대학 교수의 박사학위 현황 분석

김 형 근 대교협 정책연구부장

## 1. 머리말

대학의 교수직은 고도의 학문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므로 교수자격 기준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문 세계에서 최고의 업적과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 가치와 명예를 존중하고 있는 박사학위는 대학교수 자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 나라의 대학교수가 되기 위한 법정자격기준에는 박사학위 소지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박사학위는 대학 교수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 필요한 자격증과 같은 의미로 인식되고 있으며,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장래 대학교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사학위 제도는 비록 시대나 국가에 따라 그 양태를 달리하지만,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동양에서의 박사 칭호는 한문제(漢文帝)가 제자(諸子)의 학과를 대표하는 자에게 박사를 창설한 후 한무제(漢武帝)가 B.C 135년 오경(五經)에 박사를 설치하였고<sup>1)</sup>, 서양에

서의 박사학위는 1150년경에 Paris대학이 신학분야에 수여하기 시작하여 13세기 중엽에 이르러 문학과 철학 분야에서도 수여하였다.<sup>2)</sup>

우리 나라의 근대 고등교육제도에 의한 박사학위 수여 제도는 1946년 2월 9일 '학위령(학사, 석사, 박사, 명예 박사) 및 그 규정 발표'에 의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948년 제정된 교육법에서 대학의 박사학위 수여권을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1952년 서울대학교가 논문박사 제도에 따라 최초로 학위를 수여하였고, 과정박사제도에 의한 박사학위는 동 대학교가 1962년 처음 배출하였다.<sup>3)</sup> 그 후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은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 1965년에는 70개 대학 중 17%에 해당하는 12개 대학만이 박사학위를 수여하였으나, 1980년에는 85개 대학 중 40%에 이르는 34개 대학이, 1990년에는 53%에 이르는 57개 대학이, 그리고 1999년에는 63%에 이르는 85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자 수도 1965년 117명에서 1999년에는 6,001명으로 약 51배가 증가하였다.

1) 김종철 외, 『한국고등교육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p. 30.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계 주요국의 박사학위 수여대학 총람』, 1994, p. 78.

3) 전게서, p. 80.

이와 같은 국내 박사학위 수여 환경의 변화와 1970년 대 이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유학생의 급증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박사학위 소지율도 크게 높아졌다.

즉, 1965년의 대학교수 박사학위 소지율은 14.9%이었으나, 1980년에는 33.1%, 그리고 1999년에는 82.9%로 증가하여 이제 예·체능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문계열 소속 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박사학위 소지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밝힘으로써 앞으로 학위정책, 신규 교수 채용, 커리큘럼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의 박사학위 취득 현황을 국내와 국외로 분류하여 다양하게 비교하고, 학문계열별 및 대학설립별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2. 대학교수의 박사학위 취득 국가별 분포 현황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99년 12월에 발간한 『2000년도 전국 대학교수 명부』에 수록된 전국 204개 4년제 대학(14개 대학원 대학 및 과학기술계 대학 포함)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 수는 45,008명이다. 이 중 박사학위 소지 교수 수는 37,289명으로 전체 교수 중 82.8%에 해

당한다.

박사학위 소지 교수들의 학위 취득 현황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대학 취득은 22,332명(59.9%)이고, 국외대학 취득은 14,957명(40.1%)이다. 그리고 국내 대학 중 자교에서 학위를 취득하여 재직중인 교수는 3,802명으로 20.5%이며, 국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교수 중에서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교수는 10,052명으로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교수의 67.2%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편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순으로 학위 취득자 수가 많았다. 이처럼 미국이라는 특정지역의 박사 편중은 국내에서의 미국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지만 학문적 편식에 대한 우려도 있다.

## 3. 대학교수의 학문계열별 박사학위 소지 현황

대학교수의 박사학위 소지 실태를 24개 학문계열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박사학위 소지율이 가장 높은 계열은 24개 학문계열 중 수의학 계열로 교수 전원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약학계열 99.6%, 이학계열 96.5% 순이었다. 반면에 박사학위 소지율이 가장 낮은 계열은 예·체능계열로서 미술계열 13.6%, 음악계열 15.3%, 무용계

<표 1> 박사학위 취득 국가별 분포

단위: 명

구 분	한 국			외 국							합 계
	자교	타교	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기타	계	
일 반 대 학	3,774	16,710	20,484	9,357	291	584	1,030	1,780	911	13,953	34,437
교 육 대 학	0	439	439	76	4	3	11	13	11	118	557
산 업 대 학	0	1,277	1,277	201	11	10	30	81	32	365	1,642
방 송 대 학	0	72	72	15	0	9	1	6	1	32	104
과학기술계특수대학	28	18	46	323	10	8	11	16	3	371	417
대학원 대학	0	14	14	80	13	2	9	4	10	118	132
합 계	3,802	18,530	22,332	10,052	329	616	1,092	1,900	968	14,957	37,289

열 29.3% 순이다.

그리고 교수 수가 가장 많은 공학계열은 94.2%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0년대 까지 국내 대학에서 가장 많은 박사학위를 배출한 의학계열은 전체 계열평균 소지율 82.8%보다 낮은 74.5%의 교수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 이채롭다.

〈표 2〉 학문 계열별 박사학위 소지 현황

구 분	전체 교수 수(명)	박사학위 소지 교수 수(명)	소지율(%)
어 문	4,227	3,145	74.4
인 문	2,385	1,935	81.1
법 령	1,798	1,698	94.4
상 경	3,705	3,472	93.7
사 회	1,401	1,280	91.4
이 학	4,409	4,254	96.5
공 학	8,971	8,448	94.2
농 학	1,421	1,358	95.6
수 의 학	150	150	100.0
수산, 해양	411	370	90.0
가 정	880	792	90.0
의 학	6,974	5,197	74.5
치 의 학	362	326	90.0
한 의 학	305	279	91.5
의학지원	95	70	73.7
보건위생	117	108	92.3
간 호 학	340	259	76.2
약 학	259	258	99.6
음 약	888	136	15.3
미 술	1,516	206	13.6
연극영화	91	33	36.3
무 용	140	41	29.3
체 육	655	480	73.3
사 범	3,149	2,661	84.5
합 계	45,008	37,289	82.8

#### 4. 대학특성별 교수의 박사학위 소지 현황

대학 특성별 교수의 박사학위 소지율을 보면, 〈표 3〉

에서와 같이 과학기술계 특수대학 교수의 학위 소지율이 98.8%로 전체 대학평균 82.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산업대학은 73.3%로 가장 낮았다.

특히 과학기술계 대학의 경우 전체 박사학위 소지 교수 중 외국에서의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이 89%를 차지하고 있고, 대학원 대학의 경우도 89.4%가 외국에서 박사를 취득하여 전체 대학 평균 40.1%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한편,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의 경우는 국내 취득 박사비율이 각각 78.8%, 74.7%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대학의 경우 국·공립대학의 평균 박사학위 소지율은 89.2%로 사립 일반대학 평균 81.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 대학 특성별 박사학위 소지 현황

단위: 명(%)

구 분	전체 교수 수	박사 학위 소지자 수			박사학위 소지율(%)
		국내 취득	외국 취득	계	
일반대학	41,381	20,481 (69.5)	13,953 (40.5)	34,437 (100)	83.2
교육대학	695	439 (78.8)	118 (21.2)	557 (100)	80.1
산업대학	2,241	1,277 (74.7)	365 (25.3)	1,642 (100)	73.3
방송대학	113	72 (69.2)	32 (30.8)	104 (100)	92.0
과학기술계 특수대학	422	46 (11.0)	371 (89.0)	417 (100)	98.8
대학원대학	156	14 (10.6)	118 (89.4)	132 (100)	84.6
합 계	45,008	22,332 (59.9)	14,957 (40)	37,289 (100)	82.8

#### 5. 국내 박사학위 배출인원과 대학교수 국내 박사학위 소지율과의 관계

우리 나라 대학에서는 1952년 서울대학교가 처음으로 논문박사 6명을 배출한 이후로 1966년까지 680명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였으며, 1980년까지는 7,514명이

게 박사학위를 수여하여 1966년에 비해 11배가 증가하였고, 1989년까지 수여자 수는 총 63,993명으로 20여년 사이에 94배로 급속하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 중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 수도 1965년 449명에서 1999년에는 22,559명으로 50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국내 대학 박사 학위 수여자 수와 대학교수 중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5년에는 국내 대학교수 중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 수의 비율이 66.0%였다. 그러나 1970년 34.9%, 1980년 41.2%, 1990년 44.1%, 1995년 41.3%, 1999년 35.3%로 그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즉,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는 40%대를 유지하여 왔으나 1990년대 말 부터는 30%대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약 3분의 1정도의 인원만이 대학교수로 임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대학교수 중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이유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지만, 박사학위 배출인원과 대학교수 신규채용 인원과의 관계, 국내박사 취득과 외국박사 취득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 4> 연도별 국내 박사학위 배출 인원

대학교수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 수

구 분	1965	1970	1980	1990	1995	1999
국내 박사학위 배출인원(명)	680	2,646	7,515	23,427	42,599	63,993
국내 박사학위 소지 교수 수(명)	449	924	3,098	10,333	17,583	22,559
비율 (%)	66.0	34.9	41.2	44.1	41.3	35.3

## 6. 대학교수 국내·외 박사 임용 추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의 학위 취득현황을 국내·외

로 구분하여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면, 아래 <표 5>에서와 같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1995년부터 국외박사 구성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즉, 1965년 국외박사 구성비는 38.2%이었던 것이 1970년대부터 1990년까지는 36% 수준을 유지하였고, 1995년에는 1.2% 증가한 37.7% 그리고 1999년에는 다시 2.4%가 증가한 40.1%로 나타나 국외박사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교수를 신규채용함에 있어 대학들이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를 선호하는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표 5>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 교수 변화 추이

단위: 명(%)

구 분	1965	1970	1980	1990	1995	1999
전체교수 수	4,849	7,372	14,617	25,922	33,937	45,008
박사 학위 소지 교수수	국내 (61.8)	924 (64.0)	3,098 (64.0)	10,333 (63.5)	17,583 (62.3)	22,332 (59.9)
	국외 (38.2)	518 (36.0)	1,741 (36.0)	5,937 (36.5)	10,644 (37.7)	14,957 (40.1)
계	726 (100)	1,442 (100)	4,839 (100)	16,270 (100)	28,227 (100)	37,289 (100)

## 7. 자교 수여 박사학위 소지 교수비율

자교 또는 특정대학 출신자를 편중하여 교수로 임용하는 것은 학문연구의 편향성을 초래하고 지적 자극을 제약한다는 문제 때문에 금년에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이를 제한하는 조치까지 마련하였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자교 또는 특정대학 출신의 학위 기준을 학사학위로 하였지만, 박사학위를 기준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교 출신 임용교수의 비율에 대하여 박사학위

를 기준한 경우와 학사학위를 기준한 경우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자교 수여 박사학위 소지 교수가 100명 이상인 대학을 비교대상으로 한다.

〈표 6〉 자교 수여 박사학위 소지 교수 비율(100명 이상 대학)

단위 : 명(%)

구 분	박사학위 기준 임용비율(1999)			학사학위 기준 임용비율(1998)		
	전임교수 수	자교 박사 교수 수	구성비	전임교수 수	자교 학사 교수 수	구성비
가톨릭대	991	531	53.6	914	666	72.9
경북대	813	143	17.6	817	491	60.1
경희대	836	201	24.0	758	331	43.7
고려대	948	318	33.5	968	582	60.1
동국대	609	114	18.7	596	223	37.4
부산대	805	189	23.5	798	382	47.9
서울대	1,503	480	31.9	1,472	1,407	95.6
연세대	1,294	440	34.0	1,302	1,045	80.3
전남대	812	154	18.9	797	403	50.6
전북대	783	123	15.7	773	344	44.5
중앙대	629	111	17.6	631	219	34.7
충남대	761	110	14.5	750	205	27.3
한양대	927	165	17.8	928	427	46.0

위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교수 자교 출신 비율은 박사학위로 기준하면 학사학위 기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서울대의 경우 학사학위를 기준하면 95.6%인 것이 박사학위 기준으로는 31.9%이고, 박사학위 자교 출신 비중이 53.6%로 가장 높은 가톨릭대의 경우도 학사학위 기준으로는 72.9%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교수 중 외국박사 비중이 27%에 이르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내 대학의 경우도 박사학위는 타 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 8. 맺는 말

우리 나라 대학교수의 박사학위 소지현황을 학위 취

득지역별 분석, 학문 계열별 분석, 대학 특성별 분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박사학위 배출자 수와 대학교수 박사학위 소지율 변화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고, 국내 취득 박사학위자와 외국 취득 박사학위자의 구성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자교 수여 박사학위 소지 교수와 학사학위 소지 교수의 비율 관계도 비교하여 보았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사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우리 나라 대학교수의 박사학위 소지율은 82.9%인 점에 비추어 앞으로 대학교수가 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경우 외는 박사학위 취득이 필요적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 둘째, 박사학위 소지 교수의 학위 취득 국가별 분포를 보면, 국내 취득자가 60%, 외국취득자가 40% 수준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외 취득자의 경우 67%가 미국에서 학위를 편중 취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특정지역에 편중되기보다는 보다 균형 있는 외국학위 취득이 요구된다 하겠다.
- 셋째, 학문계열별 교수의 박사학위 소지율은 비교적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예·체능계열은 학문의 특성상 박사학위 취득이 곤란한 데도 상당수의 박사학위 소지가 있으며, 일반 학문계열 중에는 어문계와 의학계의 박사학위 소지율이 74%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 넷째, 대학 특성별 박사학위 소지율은 과학기술계 특수대학이 가장 높고 산업대학이 가장 낮다. 산업대학은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73% 수준의 박사학위 소지율도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섯째, 국내 박사학위 배출 인원의 증가와 대학교수 국내 박사학위 소지율의 증가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95년부터는 오히려 역비례 경향으로 나가고 있다.

- 여섯째, 외국 취득 박사학위 소지 교수의 대학교수 임용비율은 1995년부터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 상당기간이 지나면 외국 취득 박사학위 소지 교수의 비율이 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일곱째, 자교 수여 박사학위 소지 교수 비율은 자교 학사학위 소지 교수 비율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그 원인은 본교에서 학사 또는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후 외국대학 또는 지명도 높은 국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 『문교(교육)통계연보』, 1965 ~ 1999.
- 김정민 외, “대학교원 임용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 전략 모형”, 『교육부 연구보고서』, 1998.
- 김종철 외, 『한국고등교육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 전국대학원장협의회, 『전국대학원 박사학위 수여자 총람』, 1984.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0년도 전국 대학교수 명부』, 1999.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계 대학의 학위 수여제도 연구』, 1994.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 대학교수 자원의 특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 1983.